욕구 많으면 고통도 많다



新 불교사자성어

㉓ 오음성고(五陰盛苦)

오음성고(五陰盛苦), 오음(五陰)이 치성한 데서 오는 괴로움을 '오음성고(五陰盛苦)' 라고 한다. 오음은 오온으로서 색수상행식(色受想行識)의 가리킨다.

불교에서는 인간, 즉 사람은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색(色) · 수(受) · 상(想) · 행(行), 식(識)으로서 이것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 가지 요소이다. 색은 우리의 몸 · 육체 · 신체를 가리키고, 수상행식 네 가지는 정신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다. 수(受)는 느낌 · 감정 · 감각 등 감수성을, 상은 생각 등 사유 작용을, 행은 생각의 형성과 진행 상태를, 식은 분별 · 인식 · 판단력 등 의식 작용을 말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이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분석했는데, 이 다섯 가지를 크게 나누면 앞에서 정리한 것과 같이 육체와 정신, 두 개로 귀결된다. 따라서 육체와 정신 둘을 모두 갖고 있어야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둘 중에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아니다. 육체만 갖고 있으면 목석이고, 정신만 갖고 있으면 귀신이나 다를 바 없다.

오음성고(五陰盛苦)란 육체적 · 정신적인 욕구와 욕망을 말한다. 인간은 누구나 부(富)에 대한 욕구, 맛있는 음식에 대한 욕구, 성욕과 명예욕, 좋은 것을 갖고자 하는 욕구와 욕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뜻대로 되지 않는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 짜증 · 고민 등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오음성고, 또는 구부득고(求不得苦)라고 한다. 욕구 불만족에서 오는 괴로움이다.

욕구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다. 욕구하는 바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데, 소비하는 것을 좋아해서 고가품이나 사치품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체력이 왕성해서 성욕이 강한 사람이 있다. 이런 육체적 · 본능적인 욕구는 금욕을 강조한다 하더라도 억제하기 힘든 면이 있다. 인내해야 하는데 그 자체가 큰 괴로움의 하나인 것이다. 그것을 통칭 '오음성고' 라고 한다.

남녀는 구조적으로 서로를 갈구한다. 인간이 태어나면서 갖고 있는 본능, 또는 연애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이성을 사랑하고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순수하다고 할 수 있다. 흉이나 수치가 아니다. 누구나 이성에 대한 욕구는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게 될 때 사람들은 많은 괴로움을 겪는다. 우울을 느끼다가 그것에 잠기고,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

욕구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괴로워하게 되는데, 욕구가 많으니 고통도 많다.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모든 욕구가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20평짜리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면 얼마 동안은 행복하고 즐겁다. 그러나 1~2년이 지나면 좀 더 넓은 평수를 원하게 된다.

욕구란 무엇을 얻거나 무슨 일을 하고자 바라는 일이다. 그것은 종점 없는 기찻길과 같고, 궤도를 순환하는 일과 같다. 우리는 끝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갈망한다. 충족을 느끼다가도 모자라게 보이고, 가득 채웠다고 생각하다가도 비었다고 느끼는 것이다. 육체를 갖고 있는 한 끝나지 않는 것이 욕구와 욕망이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더 즐거움을 누려보고자 한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하다.

부처님 경전에서는 인간의 괴로움을 '4고8고(苦)' 라고 하여 모두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생로병사 네 가지와 애별리고, 원증회고, 구부득고, 오음성고이다. 그러나 결국은 오음성고(육체적, 정신적 괴로움) 한 가지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부(富)와 명예, 이성 등을 갖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욕망과 본능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사건, 사고를 일으킨다. 폭력, 절도, 성폭력 등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사회적인 범죄는 당하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 전체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적 효과는 인성을 순화시켜서 문화적인 인간을 만든다. 교육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전인적인 인간을 만든다. 인간은 교육을 통하지 않으면 동물보다 더 잔혹한 짓을 하게 된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간절히 얻으려면 물음으로 묻지 말라



격절록 강설

㉓ 노조끽반 2

[評唱 2]

僧問 "如何是雙林樹" 祖云 "有相身中無相身" 僧云 "如何是有相身中無相身" 祖云 "金香爐下鐵崑崙" 又問 "如何是學人著力處" 祖云 "春來草自青" 僧云 "如何是不著力處" 祖云 "山崩石頭落 平川燒火行" 魯祖如此為人 諸公作麼生會. 試參詳看. 所以古人道 "欲得親切 莫將問來問"

어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쌍림수(雙林樹)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상(相) 있는 몸 안에 상 없는 몸이다."

스님이 말했다.

"어떤 것이 상 있는 몸 안에 상 없는 몸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금향로(金香爐) 아래 철곤륜산(鐵崑崙山)이로다."

또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힘을 쓸 곳(著力處)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봄이 오면 풀은 스스로 푸르다."

스님이 물었다.

"어떤 것이 학인이 힘을 쓰지 못하는 곳입니까?"

노조가 말했다.

"산이 무너지니 돌이 떨어지고 잔잔한 시냇물이 불길을 태운다."

노조가 이렇게 사람을 위한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 시험 삼아 참구해 보라! 그래서 고인이 이르기를 "몸소 간절히 얻고자 하면 물음으로 묻지 말라(欲得親切 莫將問來問)" 고 하였던 것이다.

這僧致箇問端 魯祖便如此答 這僧如此進一轉語 不妨奇特. 爭奈魯祖是作家. 爐韛有大手段底 也出他不得. 後來雪竇傍不肯 便云 "好劈脊便打" 大眾好去這裏代這僧一轉語 免見雪竇恁麼道. 若是具眼腦漢 終不向言語裏作活計.

이 스님이 (이렇게) 물었기에 노조가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 스님이 이와 같이 일전어(一轉語)를 올리니 대단히 기특하다.

그러나 노조가 작가인 것을 어찌 하겠는가? 화로와 풀무를 쓰는 대단한 솜씨가 있어서 (이 스님이) 한 마디도 못한 것이다.

뒤에 설두가 곁에서 이를 긍정하지 않고 바로 말하기를 "그때 등판때기를 후려갈겼어야 했다" 고 했는데, 대중이 여기서 이 스님을 대신해 일전어를 했다면 설두의 이런 말(=질책)을 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안목을 갖춘 사람(眼腦漢)라면 끝내 말속에서 활발하게 계교부리지 않을 것이다.

❋崑崙山(곤륜산)

곤산崑山. 중국中國 전설 속에 나오는 산. 처음에는 하늘에 이르는 높은 산 또는 아름다운 옥이 나는 산으로 알리어졌으나 전국戰國 말기末期부터는 서왕모西王母가 살며, 불사의 물이 흐르는 신선경神仙境이라 믿어졌음.

❋欲得親切 莫將問來問(욕득친절 막장문래문)은 선림승보전(禪林僧寶傳)에 남원혜옹(南原慧顒)의 말씀으로 전한다.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㉓ 이해의 길 3

불교는 인간의 종교

"번역은 반역이다."

흔히 번역의 어려움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 번역은 단순히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꾸는 일이 아니다. 언어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 철학이 총체적으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간과한 채 이루어진 번역에 오역이 많은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번역은 문화와 역사 전체를 옮기는 작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igion을 '종교' 로 번역한 것은 단순한 오역을 넘어 문화적 배경을 담지 못한 반역의 대표적 예다. 지난 호에서 언급한 것처럼 릴리전은 신과 인간의 재결합을 의미하지만, '종교' 에는 그런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한자로 종교(宗敎)란 글자 그대로 '으뜸가는(宗) 가르침(敎)' 이다. 그런데 왜 종교를 으뜸가는 가르침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종교가 인간의 근원적인 물음, 즉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위대한 학문이라 하더라도 각자의 분야에서만 의미를 가질 뿐, 궁극적인 생사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오직 종교만이 그에 대한 답을 주기 때문에 으뜸간다고 한 것이다.

아직도 종교가 불교용어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중국인들은 인도어로 된 불교경전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능가경〉에 있는 '싯단타(Siddhanta)' 를 '으뜸' 이라는 뜻을 지닌 '종(宗)' 자로 번역하였다. '싯다(Siddha)' 는 '성취된 것' , 그리고 '안타(anta)' 는 '극치' 라는 뜻이다. 두 단어를 합치면 싯단타는 '성취된 것의 극치' 를 뜻하는데, 이를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언어의 길이 끊어진(言語道斷) 깨달음, 열반이 된다. 그리고 '데샤나(Desana)' 는 '가르침(敎)' 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종교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 궁극적 진리(宗)를 언어를 통해 가르친다(敎)는 의미가 된다. '으뜸가는 가르침' 이라는 한자의 뜻과 꽤나 잘 어울리는 번역이다.

그런데 릴리전이 종교로 번역되면서 본래의 의미는 상실된 채 신과 인간의 만남이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로 인해 종교의 '원조' 인 불교가 종교가 아니게 되는 이상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불교 입장에선 통탄할 일이다. 이러한 왜곡은 잘못된 번역, 동양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반역의 결과다. 그래서 서구의 종교학자들은 릴리전과 종교의 차이를 극복하고 동서양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거룩함(聖)' 을 통해 종교를 새롭게 이해하였다. 거룩함의 서구적 표현이 곧 신이며, 불교적 표현이 깨달음인 것이다.

종교학자들은 거룩함의 특징으로 초월성과 절대성, 궁극성 세 가지를 들고 있다. 불교의 깨달음은 상대적인 모든 것이 초월된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거룩함의 특성과 잘 어울린다. 우리는 돈이나 권력, 이념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이를 궁극적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언젠가는 사라지기 때문이다. 종교는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르침이다. 저명한 종교학자인 폴 틸리히(Paul Tillich, 1886-1965)는 이를 간명하게 종교는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 이라고 정의하였다.

불교의 깨달음은 어떤 절대적 존재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종교적 체험이다. 불교를 자력종교(自力宗敎)라 부르는 이유다. 붓다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등불 삼고(自燈明) 진리를 등불 삼아(法燈明) 정진하라고 당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은 원죄를 안고 살아가는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우주의 주인공이라는 것이 불교적 시선이다. 각자가 우주의 중심인 이유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성품, 즉 불성(佛性)을 본래부터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얻은 존재(覺者)를 붓다(Buddha)라고 부른다. 석가모니 붓다는 이를 직접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다. 불교는 신의 종교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 (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페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